

논문목록

Morbidity and mortality in talc-exposed workers. Wergeland E ; Andersen A; Baerheim A *Am J Ind Med(UNITED STATES)* 1990, 17(4) p 505-13

Cohort mortality study of Seattle fire fighters: 1945~1983 Heyer N; Weiss NS; Demers P; Rosenstock L *Am J Ind Med(UNITED STATES)* 1990, 17(4) p 493-504

Investigation of a lung cancer cluster in the melt shop of an Ontario steel producer. Finkelstein MM; Wilk N *Am J Ind Med(UNITED STATES)* 1990, 17(4) p 483-91

Impact of a facility-based corporate fitness program on the number of absences from work due to illness. Lynch WD; Golaszewski TJ; Clearie AF; Snow D; Vickery DM *J Occup Med(UNITED STATES)* Jan 1990, 32(1) p 9-12

Ergonomic deficiencies: I. Pain at work. Ayoub MA *J Occup Med(UNITED STATES)* Jan 1990, 32(1) p 52-7

Reasons for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 in a colorectal cancer screening program for a cohort of high risk polypropylene workers. Vernon SW; Acquavella JF; Yarborough CM; Hughes JI; Thar WE *J Occup Med(UNITED STATES)* Jan 1990, 32(1) p 46-51

Occupational outcome after military treatment for alcoholism. Wright C; Grodin DM; Harlg PT *J Occup Med(UNITED STATES)* Jan 1990, 32(1) p 24-32

Job-stress and medical consultation rates for physical illness among blue collar workers of an electrical factory in Japan: a four-year prospective follow-up study. KawaKami N; Araki S; Haralani T; Kaneko T; Masumoto T; Hayashi T *Ind Health(JAPAN)* 1990, 28(1) p 1-7

Sister chromatid exchanges in peripheral lymphocytes of workers exposed to benzene, trichloroethylene, or tetrachloroethylene, with reference to smoking habits. Seiji K; Jin C; Watanabe T; Nakatsuka H; Ikeda M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GERMANY, WEST)* 1990, 62(2) p 171-6

Urinary excretion of unmetabolized acetone as an indicator of occupational exposure to acetone. Kawai T; Yasugi T; Uchida Y; Iwami O; Ikeda M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GERMANY, WEST)* 1990, 62(2) p 165-9

Would a Federal Judicial Science Board improve toxic tort litigation? Brennan TA *Am J Ind Med* 1990, 17(6) p 761-71

But they are not thresholds: a critical analysis of the documentation of Threshold Limit Values. Roach SA; Rappaport SM *Am J Ind Med* 1990, 17(6) p 727-53

Smoking patterns by occupation and duration of employment. Levin LI; Silverman DT; Hartge P; Fears TR; Hoover RN *Am J Ind Med* 1990, 17(6) p 711-25

Limitations of hospital discharge diagnoses for surveillance of extrinsic allergic alveolitis. Kipen HM; Tepper A; Rosenman K; Weinrib D *Am J Ind Med* 1990, 17(6) p 701-9

Mortality from lung cancer among workers employed in formaldehyde industries. Blair A; Stewart PA; Hoover RN *Am J Ind Med* 1990, 17(6) p 683-99

Prevalence of pneumoconiosis among coal and heavy metal miners in Zimbabwe. Cullen MR; Baloyi RS *Am J Ind Med* 1990, 17(6) p 677-82

주요 논문 초록

『시멘트 분진에 대한 장기간 폭로와 장래의 호흡기 질환에 의한 입원』

저 자 : Vestbo J, Rasmussen FV

출 처 :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62
(3) : 217-220

포틀랜드의 시멘트공장에서 시멘트 분진에 대한 폭로와 호흡기 질환, 특히 만성폐색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에 의한 입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74년의 코호트(cohort)를 통하여 연구하였다. 근무기간이 각기 다른 546명의 시멘트공장의 남자 근로자들과 무작위로 추출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연령이 같은 857명의 대조군을 비교하였다. 입원에 대한 정보는 네덜란드 보건성에 의해 주관되는 전국적인 보고 자료에 근거하였다. 9년 8개월 동안 전체 인구의 7.8%가 최소한 1회 이상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4.3%는 만성폐색성 폐질환으로 입원하였다.

시멘트공장 근로자들을 무작위로 추출된 다른 비사무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입원율의 증가는 관찰할 수 없었다. 시멘트 분진에 30년 이상 폭로된 근로자들에게서 만성폐색성 폐질환에 의한 입원율의 증가 경향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번이라도 입원한 사람들 중 시멘트분진에 대한 폭로와 총 입원일수와는 조사기간 중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시멘트 분진에 장기간 폭로된 근로자들이 다른 비사무직 근로자들에 비해 심한 호흡기 질환의 이환율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미용산업에 있어서 직업성 알레르기 비염』

저 자 : Schwartz HJ, Arnold JL, Storohl KP

출 처 :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90 ;
32(5) : 473-475

이 연구는 과거에 직업적인 비염증상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아니한 아토피체질이 아닌 직업 미용사들에 있어서 비염반응을 자세히 관찰한 것이다. 실험실에서 퍼머액을 미용사들에게 폭로시켰을 때 임상증상과 코안의 기도폐색의 실험적 증거가 관찰되었다. 한 예에서는 cromolyn sodium(천식 치료제)을 전처치하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였으나 감소시켰다.

『유기용제에 폭로된 후 인식과 심리기능의 변화』

저 자 : Morrow LA, Ryan CM, Hodgson MJ,
Robin N

출 처 :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90 :
32(5) : 444-450

유기용제에 폭로되면 인격과 인식기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범위를 보다 자세히 연구하기 위하여, 혼합 유기용제에 폭로된 경험이 있는 32명의 근로자와 연령과 교육수준을 짝지은 비사무직 근로자 32명에게 신경심리학적인 일련의 종합검사를 시행하였다. 두 집단에 대한 일반 지적 능력의 측정 결과는 비슷하였으나 인식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학습 및 기억, 공간시각, 집중력과 융통성, 정신운동속도). 게다가 유기용제에 폭로된 근로자들의 경우 미네소타 다단계 인격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ies)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우울, 불안, 신체적 관심, 사고장애가 있었다. 심리장애와 인식장애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폭로와 관계된 몇몇 요인들은 기억과 공간시각 능력 검사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